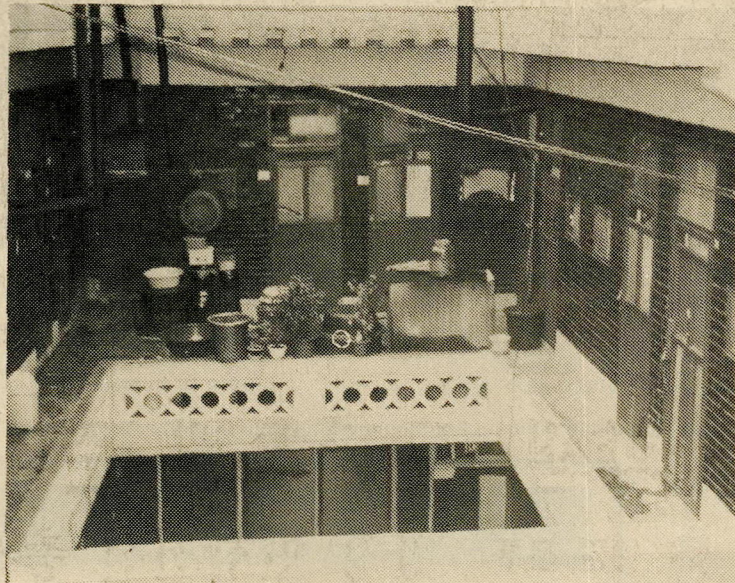


서울, 음지 양지

3

88.9.27

구로공단 '닭장집'



구로공단 주변에 밀집해 있는 이른바 '닭장집'. 한 집에 방이 보통 20~30개로 공단 노동자 60여명 정도가 함께 살고 있다.

대부분의 구로공단 노동자들은 이른바 '닭장집'에서 집단적으로 살고 있다. 3~4명씩 거주하는 2평도 안되는 방이 한 집마다 20여 개 이상씩 돼, 한 집 평균 6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셈이다. 그래서 마치 '수용소'를 연상케 하는 풍경이 곧잘 벌어지곤 한다.

가리봉 5거리를 중심으로 가리봉, 독산, 구로동에 밀집해 있는 '닭장집'은 출잡아 5백여 채, 이같은 주거시설은 구로공단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미숙련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'수용',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이곳에 '닭장집'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도 그러한 역할과 맞아떨어져 이같은 주거시설은 개선되기는커녕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.

ㄷ전기에 다니는 성아무개(23·여)씨 등 3명이 자취하고 있는 가리봉 1동 가리봉시장 옆의 '닭장집'은 방이 15개로 비교적 소규모다.

밤낮으로 늘 열려 있는 쪽문을 들어서면 가파른 계단이 코앞에 다가선다.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ㄱ자로 만들어진 복도 옆에 방문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방문(사실상 현관문)을 열면 곧바로 1평도 안되는 부엌, 빨래터 겸 세면장이다. 이 좁은 공간도 성씨 등 3명이 전부 쓰는 것은 아니다. 방이 2개가 있어 다른 방 식구 2명과 함께 5명이 사용한다.

성씨가 사는 방은 2평이 채 안된다. 거기에 비키니옷장, 3단옷장, 흑백 텔레비전, 쓰레기통 등을 들여 놓으면 키가 1백50cm 정도 밖에 안되는 3명이 눕기에도 부족하다. 그래서 제일 작은 강아무개(25·여)씨는 한 쪽으로 비껴나 다리를 구부리고 잔다고 한다.

울리면 연탄가스 냄새가 집 전체에 가득하다. 반 지하로 만들어진 방에는 습기가 차서 벽지가 너덜거리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슬어 있기 십상이다. 50여 명이 사용하는 재래식 화장실도(보통 대문 옆에 2개씩 있다)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늘 악취를 풍긴다.

20여 가구 이상이 살다 보니 수도물 사정도 별로 좋지 않다. 한 방에서 물을 틀면 다른 방에는 물이 나

지만 누구하나 신경써 주는 사람이 없다. 옆방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하는 '닭장집'의 구조는 결국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을 철저히 개별화시킨다. 충북 영동에서 4년 전 올라와 여동생과 함께 자취하는 이아무개(24·여)씨는 부엌 하나에 방 3개가 딸린 집에 살고 있지만 각자 출근시간이 달라 사람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한다. 이씨는 20만원이 채 안되는 봉급 가운데 7~8만원 정도를 저축하

몸조차 뉘기 힘든 '노동자 수용소'

한집에 방 20~30개...대낮엔 텅비어

좁도둑·여공 폭행 잦아도 본체만체

이 방은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4만5천원, 매월 전기세, 수도세 등 세 부담 5천원과 방벌비 7백원, 청소비 1천원은 별도로 낸다. 이 정도 월세의 방은 이 지역에서 비교적 안좋은 편이고, '보통 수준'의 방을 구하려면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5~6만원은 주어야 한다. 성씨가 살고 있는 이 집 주인은 별다른 직업없이 이 집에 세들어 있는 40여 명으로부터 방세를 받아 생활하면서 자가용까지 갖고 있다. 몇몇 복덕방 주인은 이 같은 '닭장집'을 2~3채씩 갖고 해마다 월세를 높이면서 방 소개비(1만~1만5천원)까지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.

'닭장집'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.

우선 집안의 환경이 엉망이다. '닭장집'은 대개 2층 양옥 ㄷ자 형태로 되어 환기가 전혀 되지 않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다. 그래서 장마철에는 방안의 이불이 늘 축축하고 겨

우지 않아 빨래를 하려면 미리 물을 받아 놓아야 한다.

'닭장집'에서의 생활은 서로가 철저히 고립돼 있다. 옆방에 누가 사는지 알아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. 그렇다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. 방 사이의 벽이 너무 얇아서 큰 소리로 얘기할 수조차 없고 줄넘기 정도를 할 마당도 없다. 이같은 집구조는 이들을 집 밖으로 몰아낸다. 그래서 '닭장집' 주변에는 이들을 기다리는 술집, 디스코장, 당구장 등이 즐비해 이들의 얇은 주머니를 기웃거린다.

'닭장집'에 사는 노동자들 가운데 도둑에게 한두 번 털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. 집주인은 대개 다른 곳에서 살고 낮에는 모두 출근해 집이 텅텅 비어 있어 넣어 놓은 빨래까지 몽땅 건어가기도 한다. 밤보다 낮에 더 극성인 도둑들은 가끔 어린 여공들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

는데 여동생도 12만원 봉급에서 별도로 자기 몫을 저축한다. 자매간이지만 시집갈 준비 등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.

73년 구로공단이 들어선 뒤 공단 주변에 형성되기 시작한 '닭장집'은 쉽사리 개선될 것 같지 않다. 공단 입주업체 4백9개 가운데 기숙사가 있는 회사가 1백70개로 수용능력은 2만3천여 명에 불과해 공단 노동자 11만여 명 가운데 나머지 대부분은 이 같은 '닭장집'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. 최근 구로공단과 가까운 광명시 철산동 등에 노동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만들어져 싼값에 임대하고 있지만 7천여 명밖에 입주할 수 없고 입주하려면 신청한 뒤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한다.

연간 수출액의 약 10%를 담당하고 있는 구로공단 노동자들은 이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보다는 '닭장집'에 의해 또 다른 '착취'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. <정석구 기자>